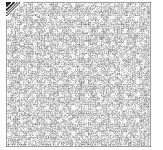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294호 2020년 7월 19일(가해)

연중 제16주일(농민 주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시편 54(53),6.8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받치는 분이
시다. 저는 가까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이
이름 찬송하리이다.

제1독서 | 지혜 12,13.16-19

화답송 | 시편 86(85),5-6.9-10.15-16ㄱ(◎ 5ㄱ)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주님, 제 기도예 귀를 기울이시고, 애원하
는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

○ 주님, 당신이 만드신 민족들이 모두 모여 와, 당신 앞에 엎드려, 당
신 이름에 영광을 바치리이다. 당신은 위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

시는 분, 당신 홀로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 당신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
애와 진실은 넘치시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

제2독서 | 로마 8,26-27

복음환호송 | 마태 11,25 참조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
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복음 | 마태 13,24-43<또는 13,24-30>

영성체송 | 시편 111(110),4-5

당신 기적을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
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이승현 베드로 신부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장

| ‘식탁공동체’, ‘생명공동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한 농장 주인의 신중한 기다림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농장 주인은 자기 밭밭에 원수가 뿌리고 간 가라지를 뽑아내려는 일꾼들에게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신중한 지시를 내립니다. 복음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듯이, 이 주인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 구성원이 농업과 농촌, 농민에 대해서 성찰하도록 초대받은 25번째 농민 주일입니다. 농업과 농촌, 농민의 문제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의 문제이며, 매일 식탁을 차리고 먹어야 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나의 한 끼 식탁이 차려지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가족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리는데 1~2시간 정도는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에서의 준비 시간보다 더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우리의 식탁이 준비된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식탁이 존재하기 위해서 짧게는 일 년, 길게는 십여 년에 달하는 농민들의 기다린 시간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도 빨라서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차게 느껴질 때가 많으며, 경쟁에서 뒤처지고 홀로 남겨

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빨리빨리’ 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것은 식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 보다는 맛과 효율만 따지게 되고, 공동체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속해있는 교회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밥(성체)을 나누는 식탁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밥을 나누기에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공동체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성체성사를 나의 삶에서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당에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끼니 때마다 우리의 식탁을 ‘예수님의 식탁’으로, ‘생명의 식탁’으로 만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식탁을 맞이할 때마다 식탁이 있도록 노력한 모든 이들, 긴 기다림의 시간 안에서 농작물을 길러낸 농민부터 식탁을 차려주신 어머니에 이르기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있는 것입니다. 식탁 안에서 도시와 농촌이 만나고, 도시민과 농민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25년 동안 지속해온 ‘우리농촌살리기운동’입니다. 식탁을 마주할 때마다 그 식탁이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농민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실천으로 이 땅에 ‘생명공동체’,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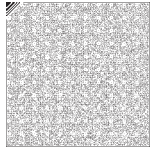


“하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비길 수 있다.”
(마태 13,24)

씨앗의 꿈이 알곡으로 차오르는 하느님 나라. 뿌리는 자의 희망과 뿌려진 자의 간절함이 만나 허기진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양식이 됩니다. 한 소녀가 알곡으로 가득 채워진 넓은 보리밭을 평화로운 모습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갑니다. 온몸을 흔들며 성장한 보리밭의 모습이 하느님 나라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이혜련 분다 | 가톨릭사진가회



정다운 프란체스카 | 방송 작가

| 낮선 풍경 속에 피어나는 동지애

미사를 드릴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다 함께 ‘대영광송’을 부를 때입니다.

대영광송은 아시다시피 주일이나 대축일 미사의 본기도 바로 앞에 노래나 낭송의 형식으로 함께 바치는 찬미가인 데요. 사제와 성가대를 비롯한 교우들이 주고받는 파트가 있어서, 미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마치 노래로 대화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셨던 하느님의 영광과 승리를 노래하고, 여러 가지 기도가 모여 하나의 찬미를 이루기 때문에 전례 중 가장 활기찬 성가가 대영광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그래서인지 이 거룩하고도 영광된 대영광송의 첫 소절을 선창하시는 신부님들의 모습도 다양각색입니다. 중후한 음색으로 좌중을 압도하는 스타일, 음 이탈이 날까 봐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스타일, 공기 반 소리 반의 안정감 있는 스타일 등 다양합니다. 신부님의 선창을 받아 그 뒤를 잇는 2층 성가대의 아름다운 하모니도 본당별로 개성이 다 달라 이걸 찾아 듣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영광송을 부를 때 남모르게 ‘화음 쌓기’를 시도하는 것이 미사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1층의 고독한 성가단원’이지만 3도 화음을 높게도 쌓아봤다가 낮게도 쌓아봤다가 다양한 실험을 해봅니다. 어떤 날은 만족스러운 화음을 내기도 하고 어떤 날은 혼자만 튀는 불협화음을 내고는 스스로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 한 가지 순기능을 꼽는다면(순전히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앞뒤 좌우 ‘평화의 인사 zone’에 계시는 신자분들께서 신기한 화음 자매 1명의 효과로 한껏 더 큰 목소리로 성가를 함께 부르신다는 겁니다. 마치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성가를 불러보자꾸나’라고 결의를 다

지는 동지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연히 여겨지던 일상이 무너지고, 성당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달 만에 재개된 미사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가를 부르는 시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2미터의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낯설었던 주일의 성당 풍경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요즘,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봅니다. 성가가 낭송으로 대체된 미사는 예전보다는 단출해졌지만 엄숙해졌고, 신자들의 수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신부님이나 수녀님들, 그리고 본당 교우분들은 정말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마스크에 가려 얼굴도 잘 안 보이지만 따뜻한 눈인사 속에서 서로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신기한 화음 자매와 함께 힘차게 성가를 불러주었던 저의 앞뒤 좌우 자리 ‘평화의 인사 zone’ 교우들에게서 느끼던 동지애를 바뀐 성당 풍경 속에서도 찾아봅니다.

어떤 노래 가사처럼 우리네 삶도 3도 화음처럼 차곡차곡 쌓여가는 이야기의 연속! 지금의 시기를 ‘결핍’으로 인한 아쉬움으로 탓하기보다 새로운 시선으로 배워가는 자세로 생각한다면 한결 여유로워지지 않을까요?

를 이끄는
성경구절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견디라
그러나
용기를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땅은
수난의
땅이다

이명순 수산나
신내동성당



서울주보에 보신탕 이야기가?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학교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전, 독일에서 체험한 일입니다.

오전 수업을 받기 위해 교실에 들어갔는데, 한 외국인 학생이 한국 학생을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너희 한국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는다면? 문명인이 개를 먹을 수 있냐?” 한국 학생은 큰 소리에 놀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안에 숨어있던 오지라퍼가 발동했습니다. “그건 네가 무식해서 모르고 하는 소리야. 너희가 알고 있는 애완견이 아니다.”, “무슨 헛소리야?”

말싸움이 계속되자 한국 학생들과 아시아계 학생들이 거들었습니다. 외국인 학생이 코너에 몰리자 다른 유럽 학생들도 가세해 대륙 간 전쟁(?)이 일어났고, 말싸움이 한창일 때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으신 선생님은 아예 수업 시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시켰습니다. 오랫동안 양측이 입에 침 튀기며 토론을 했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죠.

다른 나라의 식습관 문화는 고유한 것이기에 다른 이들의 잣대로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일본의 곤충 초밥, 개구리 회, 참치 눈알,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먹는 원숭이 뇌 요리 등은 먹는 건 고사하고 쳐다도 못 볼 것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한국의 개고기 문화에 항의하여 프랑스 여배우 브리짓 바르도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한국인이 보신탕을 먹지 못하게 해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계동물보호협회는 개고기 문화가 근절되지 않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었지요. 한국 정부는

주목

보신탕

여름이 다가온다. 여름철에 입맛을 돋구어주는 별미 가운데 보신탕을 빼놓을 수 없다. 보신탕집치고 점심 저녁으로 손님들이 들끓지 않는 집이 없다. 시내의 이름있다 하는 집에는 자가용 승용차, 택시들이 많이 있고, 번두리의 조그마한 길에도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보신탕집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들리리’ 혹은 보신탕 후보성’들도 눈에 띈다. 보신탕을 잘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기만 골라 들리리를 앞에 밀어주며 소주의 함에 권한다. 이때 보신탕은 以熱治熱의 원리에 입각해서 푸더위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음식이며 개고기는 다른 고기와 달리 이러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소화도 잘되는 최상급의 고기일 뿐만 아니라 육시라도 보신탕을 먹고 팔이 나도 삼구찌를 먹으면 간단히 해결된다 하는 소위 보신탕학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이런 강희는 장사의 세팅할 때문에 더욱 설득력있게 받아 들여진다. 이렇게 해서 概論이 끝나면 조금 전문적인 내용에 관해 신배물거리의 화답이 이어진다. 개고기 처리 방법, 양념의 배합, 요리방법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진다. 이쯤되면 들리리 중에는 죽물이라도 몇 숟갈 떠보는 사람이 나타나고 고기를 한두점 먹어보는 사람들도 나타난다. 일단 고기를 한두점 먹어보는 사람들은 보신탕 맛을 즐길 수 있는 소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친구들은 서너번만 보신탕집에 데리고 가면 제법 맛

을 알게 된다. 이때쯤 되면 서서히 보신탕 강희는 중강준비를 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된다.

오늘은 마침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대축일인데 보신탕 얘기를 해서 거룩한 분위기를 잡쳐놓을 것만 같다. 어쨌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경복경의 고기처럼 생각해서는 안되며, 영성체와 고기 한 점 먹는 행위를 같은 유형의 행위로 생각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꼬리를 배워 새대를 받은 사람이라면 성체가 우리 영혼의 양식임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어느 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소중한 음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은 성체께 대해 보신탕 만큼이나 열을 올리는지 잠시 반성해 보아야 하겠다. 주일에는 말할 것도 없고 평일에도 기회 있는 대로 미사에 참여하여 성체를 모실 때의 기쁨이 적어도 보신탕 한 번 먹는 즐거움 보다는 훨씬 커야 하겠다. 보신탕의 효험에 대한 최신보다 성체의 효험에 대한 믿음이 더 굳어야 하겠다. 친구에게 보신탕을 가르치기 위해 쓴는 정성만큼은 자녀들의 성체께 대한 신앙교육에도 정성을 쏟을 수 있어야 하겠다. 한 어류의 무리위에 저지 입맛을 잃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지체없이 합당한 준비를 하여, 우리 영혼을 배려주는 성체를 모신으로써 신앙의 건강을 되찾도록 힘쓰자.

보신탕집을 안 보이는 번두리나 골목으로 밀어내고 ‘보신탕’이란 간판도 ‘영양탕’이나 ‘사철탕’ 등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문제는 보신탕에 그치지 않았습니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며 환경정비라는 명목으로 수십만 주민이 길거리로 쫓겨났고, 전국의 판잣집을 무단 철거해버렸습니다. 부랑자, 거지, 지적장

에인들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보이면 잡혀가 수용소에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체면이나 겉모습을 중요시하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었죠. 음식 문화는 세계마다 다르고 그리고 계속 변화합니다. 음식 문화가 다르다고 그 누구도 비난할 권리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애완견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 이상 될 정도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애완견을 가족과 다름없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보신탕은 한국인들의 고급 먹거리였습니다. 1978년 5월 28일 자 서울주보에는 ‘보신탕’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을 정도입니다. 주보에는 보신탕이 건강에 좋다는 온갖 예찬론과 함께 성체 성혈 대축일의 말씀과 기묘하게 연결하여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2020년 지금 이 글을 주보에 올렸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만큼 시대와 문화가 변했다는 것이겠죠. 이처럼 서울주보는 시대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바르게 기억함은 바로 현재의 삶을 반성하고 미래를 향한 방향을 잡아준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7월 19일)은 '농민 주일'입니다

교회는 농민들의 노력과 수고를 기억하면서 도시와 농촌이 한마음으로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살도록 일깨워 주고자 합니다. '농민 주일 담화문'은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알림마당-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84년 7월25일 김병호 베네딕토 신부(64세)
- 2009년 7월20일 최석우 안드레아 몬시뇰(87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0년 11월28일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농민을 위한 기도

○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 아버지,
우주에 질서와 조화를 주시고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시어
온갖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 농업이 경시되는 상황에서도
땀을 흘려 농사짓는 농민들이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농사일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 날이 갈수록 생명이 죽어 가고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는 오늘날에도
모든 이가 마음의 고향인 농촌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온갖 죽어 가는 것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 그리하여 사랑과 일치와 신뢰가 싹트게 하시고
농촌과 도시가 하나로 이어져
온 누리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교구정리

소방사목 선교봉사자 모집

내용: 교육과정 수료 후 파견

대상: 건진받은 60세 이하의 교우

문의: 02)727-2078, 010-9109-2078 직장사목팀

시복시성 기원미사

이달의 하느님의 중 '이기연'

때: 매월 셋째주(화) 7월21일 오전 11시(153회)

곳: 서소문성지역사목관 B2 성 정하상 기념경당

2021년 명동대성당 혼인예약 안내

1월~2월: 7월29일(수)부터 선착순 방문 접수(화~일)

3월~12월: 추후 혼인추첨 예정(추첨 일정 별도 공지)

장소	요일	시간
대성당	금요일	13시
	토요일, 공휴일	12시 · 15시
파밀리아 채플	토요일, 주일, 공휴일	11시 · 14시 · 16시

필수준비사항: ① 교적증명서 1부(신랑, 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50만원(현금 또는 수표 / 계좌이체 · 카드 불가)
혼인예약 가능 일시는 명동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 혼인성사 → 혼배예약 일정을 참고
해주시요 / 문의: 02)774-1784

제25회 농민주일 기념행사

내용: 농민주일 기념미사(유경춘 주교, 사제단 공동집전),
우리농 전시 및 홍보마당, 우리농 후원회원모집 등
때, 곳: 7월19일(일) 10시~14시, 명동대성당
문의: 02)727-2275, 2276 우리농총살리기운동본부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방오석 2주기 추모전(한국화): 제 1전시실

염동국 신부 개인전(조각): 제 2전시실

백유선 · 임은재 모녀전(회화, 의류): 제 3전시실

전시일정: 7월22일(수)~28일(화) 오전

직원모집

서초동성당 관리 직원 모집 / 문의: 02)585-6101

대상: 세례받은 분 / 인원: 관리 근무자 0명(계약직)
업무: 시설관리, 방호, 미화(소방·가스·전기 등 시설물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유경험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방문·우편(우 06636,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64길 73 서초동성당) 및 이메일(seocho@catholic.or.kr) 접수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서울) 직원 모집

분야: 총무팀(계약직, 청소) 1명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7월26일까지 접수

문의: 02)740-9708(<http://songsin.catholic.ac.kr>)

수유동성당 사무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교우로 회계 업무와 PC(한글·엑셀 등) 가능한 분 / 문의: 02)999-9701

인원: 사무원 0명(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 7월31일(금)까지 우편(우 01043,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165 수유동성당 사무실) 및 이메일(ela1225@seoul.catholic.kr) 접수

서울대교구청 직원 모집(교구 사무원 · 주방근무자)

대상: 세례받은 분(경력자 우대) / 이메일 문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 참조),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8월2일(일)까지 이메일(acinsa@seoul.catholic.kr) 접수

교구 사무원(회계관련직)	0명(계약직)
성 앵베르 센터 (은평구 진관동 피정의 집)	주방 근무자 0명(계약직)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돈보스코 여자 재속회	수시	영등포구 신길6동 여의대방로65	0505-1306-1505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매월 넷째주(토) 15시~(일) 13시	서울 분원(장충동)	010-8353-2323
수원 성 빈센트 드불 자비의 수녀회	수시	본원(수원)	010-8833-8107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봉쇄 수녀회	수시	수녀원(청주)	043)295-5940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한국외방선교회	8월2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인준단체 알림

모임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봉헌

대상: 중재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분
 때: 8월1일~31일 / 문의: 010-5482-3217

묵주기도와 가톨릭 교리 모임 / 문의: 031)852-6324
 때, 곳: 매주(화) 10시 묵주기도·11시 가톨릭 교리 강의·14시 미사, 파티마 평화의 성당(주최)

젊은이를 위한 몸신학 피정

주제: 몸에게서 사랑을 배우다 / 회비: 6만원
 때: 8월7일~9일(2박3일) / 대상: 40세 미만 청년
 문의: 010-5313-0241 아씨의 프란치스코 전교수녀회

렉시오 디비나 피정(말씀으로 기도하기)

내용: 유덕현 아바스와 함께하는 자연 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때, 곳: 매주(토) 14시~(일) 14시,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도회(주최, 경남 고성군) / 문의: 010-2816-1986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 문의: 064)796-9181
 올레, 미사, 기도, 강의 /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1인1실, 넓은 강당과 식당으로 거러두기 가능합니다
 때: 7월27일~29일, 7월31일~8월2일, 8월13일~16일, 8월25일~27일, 8월31일~9월2일

둘째 미디어 / 문의: 010-3173-2665

둘째생활 피정	다음카페: 둘째생활피정	최영민 신부(예수회)
혼인성소찾기 피정	다음카페: oh oh my half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도미니코 피정의 집)

하계 피정	8월14일(금)~16일(일)	문의:
성경 완독 피정	8월21일(금)~29일(토)	010-3340-0201

어르신 사발 피정 '죽음-웨다잉(선종)' 강의·미사
 곳: 노인복지위원회 성모노인쉼터(주최, 종로3가 창덕궁 앞) / 문의(접수): 02)766-7370

죽음(선종)	7월28일(화) 10시~14시
심판·지옥·연옥·천국·성체·성모님	매월 셋째주(화) 10시~14시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80차	8월7일(금)~15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81차	9월25일(금)~10월3일(토)	
제82차	11월6일(금)~14일(토)	

교육

성물조각·영성가구 교육생 모집(가톨릭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불로동성당 교육 / 문의: 032)569-1004

내용: 교회 내 성회령 예방 및 대책
 강사: 이우진 신부 / 대상: 모든 교우
 때, 곳: 7월26일(일) 13시30분~15시30분, 불로동성당

1:1 온라인 복음화학교

비대면 우편방식 또는 SNS 방식 / 문의: 02)2096-0410, 0411 새천년복음화사도직협의회 교육국
 대상: 현장 수업을 받기 어려운 희망자는 누구나(해외 교민, 지방 거주자, 서울 거주자 중 현장 참석 어려운 분)

새김전각 수강생 모집(가톨릭글씨문화연구회)
 인스타그램: @stephen_yoo67 / 문의: 010-2036-3590(문자)

양업고등학교 가톨릭 좋은학교 연수

때: 8월1일(토) 10시30분~21시 / 문의: 043)260-5076
 대상: Quality School에 관심있는 학부모, 교사, 일반인 / 2021학년도 입학전형 안내도 겸함
 7월20일부터 학교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과정: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홈바리스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주1회·12주) / 교육문의: 010-9040-8306, 010-2511-6845(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 (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2021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시 모집

모집인원: 3,017명(수시 2,635명)
 전국최대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의료보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
 가톨릭지도자추천(간호·심리·사회복지·경찰행정 등)
 총장: 김정우 신부 / 문의·입학상담: 053)850-2580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주제: 일상 삶에서 하느님 만나기 / 회비: 7만원
 대상: 기도하고 싶으나 방법을 모르는 신자
 때: 7월28일부터 매주(화) 10시30분~19시40분(총6회)
 곳: 사랑의 힘 발당 5층(전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5번)
 7월23일까지 접수 / 문의(접수): 02)333-9898 한국CLC

예수회 특별 강좌 가톨릭 신앙과 영성(예수회센터)

강사: 임숙희 박사, 홍기령 교수, 예수회 사제(송봉모·김정택·이규성·전찬용·권오면)
 때, 곳: 9월8일부터 매월 둘째·넷째주(화) 10시~11시55분(총7회), 예수회센터 3층 성당
 이 밖의 다양한 강좌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가톨릭의대 알코올관련 인지장애 연구참여자 모집

대상: 음주와 관련하여 기억력, 판단력, 언어능력 등의 저하가 나타나는 인지기능 장애(경도 인지장애 또는 치매)가 의심되거나, 현재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성인(만 50세~65세) / 문의: 010-7626-7586
 내용: 혈액검사, 뇌MRI 및 인지기능검사(검사비 무료)
 주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중독기술제어센터
 곳: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서초구)
 전화상담 후 참여가능 여부·검사내용 안내
 기타: 교통비 포함한 사례비 지급

인천교구 지혜의 샘(북방선교기독교공동체) 교육

곳: 부천시 송내동 366-5 지혜의 샘
 문의: 010-5454-1871, 010-3248-9705
 교육관에서 매일 미사와 묵주기도 100단이 있습니다

월	첫째·셋째주 봉사자 교육 피정 둘째·넷째주 하느님 자비 월요 피정
화·수	성막과 십자가 치유 말씀 강의
목	목요 찬양 치유 피정 일 말씀치유 낮기도회
금	성시간과 함께하는 철야 기도회

모집

제7회 가톨릭영화제 사전 자원활동가 모집

모집분야: 자막번역, 촬영, 홍보 등
 활동기간: 10월말까지 /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caff.kr)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미사

콘텐뽀알 프란치스코수도회 후원회 미사

후원회 미사 및 프란치스코 영성강좌 / 02)793-2070
 때, 곳: 7월20일(월) 10시, 프란치스코수도원(한남동)

평양교구 신우회 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7월22일(수)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내용: 강의, 미사, 성체조배, 고해성사
 때, 곳: 7월20일(월) 13시~15시30분, 가톨릭회관 2층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가르멜영성문화센터(가르멜 수도회)

카카오톡 '가르멜영성문화센터' 채널 추가
 문의: 010-4149-1853, 1864(carmelcenter.kr)

첫 토 성모심심미사	매일 첫번째(토) 10시30분
성시간	매일 마지막(토) 7월25일 13시30분
문화강좌	초공예·서예반 수시 모집

인내

카타리나 피정집 / 문의: 010-9715-1203

대상: 개인·소그룹 / 자체 취사
 곳: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형성)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센터

우울·불안, 성격, 대인관계, 가족, 진로 / 02)2258-7720
 곳: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 비대면 상담 가능
 상담비: 대학원생 5천원, 전문가 7만원

카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가족이 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 알코올 중독 회복을 위한 주·야간재활 교육과 가족모임 운영
 때: 주·야간 운영시간(월~금) 9시~17시, (화·수) 19시~21시

사별가족 돌봄 프로그램 '사랑마루'

대상: 사별을 경험한 가족으로 회복의 시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 / 8월16일(일)까지 접수
 때: 8월27일~10월15일 매주(목) 14시~17시(8회)
 곳: 용산성당(용산구 효창원로15길 37)
 문의: 010-8891-4572 용산성당

성리파엘심리상담소

때: (월·일) 주말상담 / 070-4248-7573, 010-3008-4627

가족세우기	매주(토) 14시~16시 소그룹(건강한 대화)
전문심리치료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 및 가족 개인(분노·우울·불안·부작용) / 종합심리검사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자아의 통합과 영성	9월3일~12월17일 매주(목) 10시~13시 9월5일~12월19일 매주(토) 10시~13시
생활속의 심리학	마음과 상담-9월3일~10월22일 매주(목) 13시~15시, 몸 트라우마, 정서에 대한 이해-일정 추후공지 매주(목) 13시~15시
전문심리상담	가족, 개인, 부부,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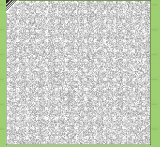
상당: 공황, 불안, 우울, 가족, 부부, 영성
 소장: 이찬 신부(골롬반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문가)
 문의: 010-9295-5912 / 홈페이지: www.dstoun.net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및 미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정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성인, 부부갈등문제, 우울과 불안감으로 일상생활 어려운 분, 심리검사를 통한 관계이해 / 미술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 과정: 7월31일(금) 10시~15시(5주, 6명)



제25회 농민주인 도시와 농촌이 함께해요



휴, 올해 너무 더워서
갑자기 자라느라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지구가 많이 아프다는데,
언제까지 '기후위기'라고만 말할 거야~
우리는 안 변하나요?!



그거 알아? 가톨릭 농민회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생명농업으로
지구 온도를 낮추는 실천 중이라고~!



우리 도시에서도 지구 온도를
1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의외로 너무 쉬운 실천사항이 있지는 않을까?



전 신자나 개인 대상별로
하느님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생태적 성찰을 시작할 수 있어~

일례로 주일학교 고리수업이나 생태 체험,
각종 교육, 회의의 간식을 우리농으로
바꾸는 것도 함께하는 방법 중 하나야!

그리고 본당에서 '생태사도직'으로
<본당 우리농 생활공동체>라는 활동이 있지.
1997년에 본당 생활공동체가 시작됐는데,
2018년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로 정식 등록되었어~
가톨릭농민회 본회(농촌공소)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도 있고,
계약 생산과 책임소비로 농민의 지속적인 농업활동을
지지하면 생명농업을 통해 생태계 회복을 도와!

신자 개개인의 경우
우리농 회원가입으로
우리 집 밥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우리농운동은 생태계에 대한 책임을 함께 배웁니다.



생명중심의 가치관, 세계관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보전하기 위한 생태적 성찰의 시작
'사순 · 대림 특강, 강론, 단체별 교육'
- 땅과 함께 사는 소박하고 순환적인 삶을 위한
'천주교 농부학교 · 심화교육, 생태 농활 프로그램'
- 교회 내 생태사도직 활동가 양성을 위한 '생태사도직 프로그램'
(신입 활동가 교육, 활동가 연수, 활동가 피정, 회원 교육 등)

우리농운동은 생명세상, 공동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생명이 가득한 먹을거리의 향연, '우리농 회원가입'

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
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우리농운동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
들은 우리농 회원에 가입해 주세요.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하신 후, 가입비 3천 원과 예치금 3만 원을 내시면 됩니다.
회원에 가입하시면 가톨릭 농민들이 생산한 생명의 먹을거리를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회원가입: 02)2068-0140, 인터넷 www.wrm.kr



774-1784(☎)
753-1784(FAX)

☎ 본당 연례회 ☎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지상술(힐 라리 오)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부 주 임 유영주(세례자요한) 신부
보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 명동대성당 평일·주일미사 시간 (6월 21일부터 적용)

요 일	미사시간	미사장소
월~토	10:00, 18:00	대성전
일요일	08:00, 10:00, 11:00, 12:00 14:00, 16:00, 17:00, 18:00 (※영어미사 없음.)	

※토요일 오후 6시미사는 '주일미사'입니다.

※제온 축정과 신원 확인 등의 사전조사 후 이상이 없을 시 미사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사회적인 거리 유지를 위해 미사 한 대의 참례인원은 250명 내외로 제한됩니다.

※주일미사 참례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적사항을 작성하실 때 '전체 차량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 2021년도 명동대성당 혼인미사 예약 안내

2021년 1월과 2월 혼인미사 예약을 7월 29일(수)부터 선착순으로 방문 접수합니다.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혼인미사 예약은 예년과 같이 추첨으로 진행되며, 추첨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합니다.

혼인장소	요일	시간
대성당	금	13시
	토, 공휴일	12시, 15시
파밀리아 채플	토, 일, 공휴일	11시, 14시, 16시

·혼인예약기간 : 2021년 1월 ~ 2월

·방문접수시작 : 2020년 7월 29일(수) 09:00~18:00
월요일은 성당 사무실 휴무이므로 화~주일 09:00~18:00 사이 방문 요망

·필수준비사항 : ① 교적증명서 1부 (신랑, 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 50만원 (현금 또는 수표 / 계좌이체 · 카드 불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1월과 2월 혼인미사 예약 가능일시는 본당 홈페이지(www.mdsd.or.kr)→미사와 성사→혼인성사→혼배 예약일정을 참고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본문에 공지된 혼인 관련 안내문과 이행 조건들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혼인 비용은 2020년 7월 기준이므로 예약 이후 변동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7월 세례자 감사예물

지난 주일 세례성사를 받으신 분들께서 감사예물로 3,075,000원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기부 진시 ◆◆

명동성당 중립계획 2단계 기금
(7월 6일 ~ 7월 12일 : 300,000원)
누계 : 1,533,725,123원

조 경 희 : 100,000원
익 명 : 100,000원

남 지 영 : 100,000원

기부 진시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 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본당 사무장 ☎ 010-9072-5883

◎ 8월 예비신자 교리반

명동대성당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과정의 교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8월 입교 시 세례성사는 2021년 2월에 거행되며, 예비신자환영식은 8월 2일(주일) 오후 2시 교구청본관 401호에서 있습니다.

교리반	시 간	장 소	강 사
토요반	오후 4:00	교구청 본 관 401호	이 안젤라 수녀

※사전 접수 없이 8월 2일 환영식 당일에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60명만 접수합니다!

◎ 청소년봉사부와 주일학교 관련 안내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도 첫영성체는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 여름캠프는 없을 예정입니다. 초등부·중고등부·술봉이 주일학교 개학은 추후 별도 공지 시까지 계속 보류됩니다.

◎ 명동대성당 엘리사벳 장학회 후원금 접수

엘리사벳 장학회는 1994년 2월 설립되어 학교생활이 모범적이고 배움의 열정은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후원계좌 : 우리은행 004-611313-01-085

명동성당 엘리사벳 장학회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7/6-7/12).....14,379,600
· 연중 제 15 주일 헌금.....12,613,700
· 감사헌금 (7/6-7/12).....820,000

고 니콜라오 / 김 루치아 / 김 카타리나
남 카르멘 / 박 율리안나 / 오 마태오
이 켄마 / 정 플로라 / 최 로사리아
최 이레나